

**“내가 생명의 빵이다.
나에게 오는 사람은
결코 배고프지 않을
것이며, 나를 믿는 사
람은 결코 목마르지
않을 것이다.” (요한
6,35)**

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
성체 성혈 대축일을 준비하도
록 성 호세마리아의 '그리스도
의 성체 성혈 대축일' 강론을
제공합니다.

2025-6-16

‘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’인 오늘 우리는,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데 모였습니다.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, 복되신 성체의 형상 아래 숨어 계십니다. 이로 인해 마치 군중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. “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.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.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.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,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.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.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,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.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, 어떤 것

은 백 배, 어떤 것은 예수 배,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.” (마태 13,3-6)

참으로 생생한 장면입니다. 씨 뿌리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도 당신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.

....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<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naega-saengmyeongyi-bbangida-naege-oneun-saram-eun-gyeolko-baegopeuji-anheul-geosimyeo-nareul-midneun-saram-eun-gyeolko-mogmareuji-anheul-geosida-yohan-6-35/> (2026-1-23)